

技術開發로 資源難 구축

食品工業의 當面課題

食品工業의 重要性은 人間生活의 三大要素가 「衣·食·住」란 事實에서 뿐만이 아니다.

① 세계人口가 西紀 2,000년에는 現在人口의 約倍에 該當하는 80億名에 이를 것이라고 人口學者들이 推計하고 있으므로 食糧 節約의 效率化를 위한 食品工業化가 切實히 要請되며 ② 世帶單位의 在來式 炊事가 浪費하는 時間을 稼得함으로써 食生活의 生産化를 可期할 수 있고, ③ 언제 어디서든지 飯食에 代替할 수 있는 工業食品은 먹는 時間의 短縮과 非常狀況에 適應하는 食事が 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一連의 背景과 理由들은 食品工業이 지닌 重要한 社會性과 人類食生活의 時代性을 알수있게 한다.

資本進出과 輸出素地

輸出工業으로의 食品工業은 其他工業에 比해서 大體로 開發歷史가 落後된 工業에 屬한다.

이것은 우리의 食糧問題가 難題化된 原因의 하나로 看做할수도 있겠다.

그러나 資本과 技術의 海外進出은 比較的의 刮目할만한 것이 있고 한편 輸出增進度도 最近數年間은 每年 100%線을 上廻하고 있는 셈이다.

國內工業食品 關係業體는 通稱, 1萬名이라고 하나 「大메이커」는 韓國食品工業協會 傘下 23個 會員社를 비롯해서 約 40個所를 呑呑할 수 있을 程度이다

食品工業의 當面課題는 重疊되어 있다.

즉, ① 原料 確保難이 尤甚해졌고, ② 施設



尹 能 善

〈全經聯 事務局長〉

의 近代化·集約化가 要請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한 資金의 調達(自體資金·政府施策으로의 支援·借款 및 外國人投資導入)이 必要하며, ③ 技術의 國內開發과 海外로 부터의 導入이 緊要하다.

다만 여기에 附言하고 싶은 것은 一部 業者가 無原則한 技術導入을 하는 例가 없지도 않은 點이다.

이미 國內開發로 産業技術化한 것과 類似的한 技術을 導入함으로써 所定の「로얄티」를 支拂하게 되는 것은 다음에 말하려는 바와 같은 外貨事情으로 보아서 無思慮한 外貨浪費이고 한편 外資導入관계 法令의 側面에서도 運營의 妙가 더욱 發揮 되었으면 한다.

72年 라면工業이 「브라질」에 資本進출을 하고 調味料工業이 같은해 「인도네시아」에 資本進출에 成功한 것은 72年度가 韓國食品工業 資本의 海外進출의 해 이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資本進출이 技術進출을 따르게 하고 또 그 後에 海外各地域에 대한 資本 및 技術進출의 刺戟劑가 되었던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輸出食品은 라면, 菓子, 설탕, 통조림, 調味料 및 其他를 들수 있는데 輸出市場이 廣範圍하다.

東南亞地域으로서 日本,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아 그리고 美國, 北歐, 中東, 北阿地域의 一部 國家에 까지 國產食品이 進출되어 있다.

食品의 輸出量에 比해서 輸出市場이 이와같이 多邊化한 것은 앞으로 輸出增進을 크게 期待할 수 있는 素地로 評價되고 있는것이다.

다만 前項에 말한바의 隘路(原料難 및 其他) 打開의 程度如何가 關鍵임은 勿論이다.

食糧問題中的 小麥比重

73年 10月の 第4次 中東戰이 물고은 世界 資源難 問題는 그後的 食糧情勢가 好轉되었음에도 不拘하고 73年中에 있었던 食糧危機가 그림자를 거두지 않게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보크사이트, 銅, 木材 및 其他에 새로운 資源 民族主義가 움틀 可能性마저 擡頭할 程度이다.

世界 1百 35個國을 하나로 묶은 UN이 資源問題를 議題로 하는 臨時總會를 4月 9일에 열었다는 事實만으로도 世界 資源問題의 重大性을 說明해주고 남음이 있을것같다.

더우기 여기에 敷衍하고 싶은것은 73~74米穀會計年度를 뒷받침할 世界생산豫想이 大豊이기는 하지만 쌀輸出國이 取할 態度가 未知數인 때문에 食糧難意識은 좀처럼 減退하지 않는다.

資源難이 「不可避한 供給力不足」에 緣由하지 않고 人爲的인 減產등에서 오고 있음을 人類는 石油 生産國의 實例에 依해 뼈저리게 알게된 것이다.

하기는 쌀값을 올리는 方法으로 減產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其他의 方法으로 輸出國이 高價政策을 쓸수는 있으며 그를 豫見하는 大消費國의 買占이 世界食糧難을 부채질할 公算은 높다.

英聯邦 事務局의 推計만 보더라도 73~74米穀會計年度의 쌀은 3億1千萬톤(72~73年米穀會計年度보다 6.3%의 增加)이 收穫될 것으로서 印度, 인도네시아, 美國이 모두 大豊이고

中共, 日本, 泰國 또한 豊作이다. 또 國別로 例를 들자면 大米産國인 中共이 1億3百萬톤으로 前年度 보다 4百萬톤이 늘어나고 印度는 6千6百萬톤이 生産되어 前年比 3百萬톤 増産으로 推計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日本, 泰國, 暹글라데쉬等等 例外없이 産지이다. 아뭏든 世界의 米穀豊作 豫想이 우리 食品工業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쌀 供給力이 늘어나면 그만큼 小麥粉 등 食品工業 原料가 増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본다면 지난 2月 美國政府가 75年度 平和食糧計劃額(無償 및 長期借款등의 食糧援助)이 9億8千70萬弗로 削減修正한 73年計劃보다도 오히려 10%나 減少된것. 美·蘇兩國間에 이미 輸出入 契約이 成立된 糧穀의 現物引渡를 1年間 延期하는데 合意한 것등 一聯의 事實은 食糧問題가 現實的으로 그리고 展望的으로 不安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立證의 一部 이었다.

이러한 經過에 비추어본다면 73~74米穀年度의 쌀豊作推計가 일단 鼓舞的 事實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지난 2月 下旬 經濟企劃院이 74年度 主要 品目の 生産增加率을 再調整한 바에 依하면, 쌀, 蠶繭, 肉類, 水産物, 石炭, 鐵鋼, 시멘트, 板유리, 合板, 自動車, 動力耕耘機 등의 生産增加率이 모조리 昨年의 生産增加率보다 低率化하였는데 麥類만이 昨年의 12.1% 보다는 약간 高率인 13.9%로 調整되었었다. 특히 쌀 生産增加率이 昨年에는 6.4%이었으나 今年에 3.1%로 増産目標가 激減된 것은 오는 76年度가 쌀 自給自足の 目標年度인 것

과의 關聯에서 注目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工作機, 造船能力, 新聞紙, 綿絲, 나ilon糸, 아크릴糸, 肥料 등은 모두 昨年보다 増産이 높게 策定되었음을 附言해 두어야 하겠다.

또 關係當局의 長期 食糧需給計劃에 依하면 81年에도 外穀 3百萬톤 以上을 導入해야 할 것으로 되어있다. 즉 쌀과 보리는 각각 27萬7千톤의 41<6. ·~ 過剩狀態가 豫想되나 밀, 옥수수 등 雜穀消費가 늘어나서 결국 81年에도 72年度의 外穀導入實績인 3百20萬톤程度의 導入이 不可避하게 될 것으로 推計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쌀生産이 오는 85년에는 現在의 倍量에 이를 것이고, 飼料穀物 또한 그러하며 大豆1/3, 綿 30%, 牛肉 44%, 등으로 各各 増産된다는 美農務省 專門家들의 推計發表가 부럽기만 하다.

이래서 우리는 農産物 특히 小麥, 옥수수 등 雜穀生産에 더욱 힘써야 하겠으며, 政府가 74年度 國民投資 基金總額 9百億원(當初의 1千 1百億원 計劃을 削減修正한것)중에서 1百億원을 食糧増産事業費(農業機械化資金 5億원 및 其他)를 投下하게 된 것은 食糧増産에 대한 政策熱意를 보여준 것이다. 當初는 國民投資 基金이 重化學工業에 全的으로 쓰여질 것같이 一般이 認識하였기에 말이다.

아무튼 食糧増産이 穀種間에서 더욱 調和되어야 할것 같다. 지금까지의 生産實績 그리고 上位에서 말한 81年을 目標年度로 하여 長期 食糧 需給計劃 등으로도 쌀과 보리는 남아돌게 되어도 밀, 옥수수 등 雜穀이 大量 不足 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小麥의 경우만 하더라도 過去 20數年間 生産不振 狀態가 持續되어온 理由가 많이 自然條件에 있었지만 美國의 剩餘小麥을 無償 또는 長期借款 등으로 받아 들여온 우리여서 그 價格이 너무 低廉하였기 때문에 價格競爭上 勝算이 없었고 그것이 國產小麥의 增産 不振의 큰 原因이었다고 아니할 수도 없다.

앞으로는 世界小麥供給 事情이 달라진 다고 하더라도 昨年의 世界 食糧 危機以前 小麥價格이 還元될 만큼의 國際 時勢의 調整을 期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小麥增産에 加一層 힘써진 理由의 하나가 생긴 것이다.

國際小麥委員會가 밝힌바에 依하면 74~75年의 小麥生産은 3億4千1百萬噸(中共 生産量 不包含)으로서 72~73小麥年度의 3億1千1百萬5千噸, 73~74年의 3億3千8百萬噸 等에 비해 順調로운 增産步調를 보이고 있다.

74~75年의 統計속에는 當初 豫想보다 2百70萬噸이 더 많은 蘇聯生産分의 1億9百70萬噸이 包含의 되어 있는데 73年度의 小麥凶作이 耕作面積擴大를 招來시켰음도 알수 있게 한다. 이와같은 世界 小麥增産은 우리나라 食品工業界에 대한 生産增強과 輸出擴大의 動機成熟의 적지않은 原因이 될 것이다.

食品工業의 經營姿勢

앞으로 食品工業의 經營姿勢가 原, 副資材의 確保와 輸出增進에 2大 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世界的으로 原, 副資材의 生産이 增大된다고 하더라도 需要增大率이 이를 앞지

르게 되리라고 展望하는 것이 옳을 것이기에 말이다. 그리고 主된 그 理由는 低開發國들의 工業食品의 消費가 激增될 事實에 두어져 있다. 低開發國들의 食生活이 점차工業食品에 移行되고 그를 可能케 하는 뒷받침이 此等國家群의 國民所得增大인 것이다.

하지만 問題가 되는것이 原, 副資材의 確保 方法論인데 이를 理論的으로 말하자면, ① 國內資源의 開發, ② 輸入原資材의 適期輸入 특히 長期契約의 成功, ③ 資源國과 提携하여 共同開發輸入을 하는것 등을 列舉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實際問題로는 決코 容易한 것이 아니다. 業者들의 透徹한 創意, 努力과 政府의 金融, 稅制 등에 걸친 支援이 要請되는 바이다.

그리고 食品工業이 한편으로 內需充足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 餘他業種보다 輸出增進에 各별한 寄與를 해야만할 所以는 그 原副資材의 輸出依存度가 높은 事實에 있다.

輸入 生産資材로 이룩되는 製品은 多量히 國內消費를 節約하고 輸出商品으로 置重되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消費物資인 工業食品이 國際收支惡化의 一要因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對外 債務는 既債元利金 13億5千4百59萬6千萬弗를 除外하고 51億3千5百萬弗에 達하고 있는데 이의 元金이 35億2千5百萬弗, 利子16億1千萬弗(別表의 通貨別 債務殘額)이다.

한편 今年度에 償還해야만 하는 外資元利가 5億6千2百萬弗(元金 2億9千5百萬弗, 利子 2億6千7百萬弗)로서 昨年의 元利償還 計劃이었던 것보다 1億2千2百萬弗이 늘어났다.

다만 經常收入에 대한 負擔率이 昨年의 10.7%보다 낮은 10.4%임은 多幸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輸出目標을 期必코 達成해야 한다.

通貨別負債殘額

通貨別	負債額 (單位千弗)	全體에 百分의	대한 比率
달러貨表示	3,714,573		72.3%
圓貨表示	659,329		12.8%
파운드貨表示	249,923		4.9%
마르크貨表示	247,315		4.8%
프랑貨表示	171,088		3.3%
카나다貨表示	7,317		
其他	85,668		

또 하나의 促求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對外負債의 元利償還額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外國人投資의 果實送金이 또한 大幅 增加하고 있음도 우리가 輸出增大에 積極邁進해야 할 切實한 理由의 하나로 看做된다.

今年度에 있어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果實送金額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豫則될 수 없는 일이지만 73年度의 外國人 投資企業 및 商社를 參考로 回想해 본다면 2億5百64億弗에 達하였던 것이다. 72年度에 비해 27%, 71年度보다는 42%의 各增額이며 73年度의 貿易外支給額의 42%에 該當하는 額數이다.

그리고 今年度의 果實送金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지금 豫則할 수 없는 일이나 昨年水準으로 본다면 外債元利償還과 合하여 7億6千7百64億弗에 이르게 된다.

輸出增進에 全力하고 外貨消費節約에 透徹해야 한다는 것을 몇번 되풀이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73年度의 경우를 보더라도 輸出이 32億5萬

弗로서 當初目標을 38.5%나 超過達成(前年度에 比해서는 80.1% 增加)하였지만 輸入은 43.8% 超過한 41億弗에 이르러 貿易收支赤字가 約 8億5千弗을 示顯하고 말았던 것이다.

勿論 昨年의 輸入用 外貨의 激增은 世界的인 原資材값의 暴騰과 備蓄用 原資材의 輸入을 서둘렀던 두 가지의 事實에 緣由하였으며 貿易赤字의 年例 實績으로 보아서도 73年度의 赤字가 특히 關心事가 될 바아니다.

위나 高率의 輸出增加이었기 때문에 貿易赤字를 크게 줄이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해지는 일이다.

結論하자면 食品工業界는 ① 食品工業이 지니고 있는바 社會性이 지극히 크고 특히 韓國은 食糧의 約 30%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면서 國民食生活이 飯食爲主에서 工業食品으로 代替改善되는 率이 急激히 높아지고 있음을 正視하고, ② 施設의 刷新, 技術의 向上으로 國民의 恩賜係數가 빠른 速度로 낮아지는데 寄與하며, ③ 食品工業의 原, 副資材를 高率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輸出增進에 더욱 注力하기 위해 海外市場의 多邊化와 製品의 多樣化 및 高級化에 各별히 留意하고, ④ 生産資材의 確保를 위해서는 資源의 國內開發, 資源國과의 共同開發 및 長期輸入契約締結 등으로 生産原資材의 長期且安定的인 輸入을 꾀하며, ⑤ 資本과 技術의 海外進出을 意慾으로 強化하여 韓國食品工業界가 世界各地域에서 이미 浸入은 「이미지」를 安着시키고 또 나아가서 新市場에 擴散시키는 等等 一聯의 對內, 對外的 經營姿勢를 굳히도록 거듭 促求해 마지않는 바이다.